

지 상 범 석

안락으로 바꾸는 일

“지옥이라도 부처의 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이고 부처도 지옥을 행하면 그 자리에서 지옥이다”

처이고, 하루 동안 부처의 행을 하면 하루 동안 부처이며, 영원히 부처의 행을 하면 영원히 부처이다”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던 이제 맨처음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은 얻은 셈입니다. ‘깨달음이란 인식의 전환인 동시에 행동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불해야 하는가, 부처는 지옥을 비롯한 고통의 악도(惡塗)를 쉬고 선도(善塗)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도를 쉬고 선도를 행하는 것은 지옥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극락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부처에게는 내외가 따로 없으며 출세간과 세간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자기의 고통입니다. 부처의 행은 세간의 모든 고통을 안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행을 하려는 사람은 중생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널리 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세간을 불국토로 장엄하는

을 교화하는 일이 바로 보리를 구하는 것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교화하고 교화하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살은 그 마음이 항상 ‘공(空)’, ‘가(假)’, ‘중(中)’의 3제(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되 현실의 고통과 함께 해야 하고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수행이 교화이고 교화가 수행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참선, 독경, 염불, 주력, 기도 등도 교화이며,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을 흉포하고 실천하는 일도 수행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 속에 참여해서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시민운동도 또한 수행이며 부처의 행동입니다. 통일, 공해추방, 사회복지, 경제정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사회운동들도 수행이며 부처의 행인 것입니다. <유일마니보적경>에서 “판야 산에서 연꽃이 피지 않고 방축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열반 속에서는 보살이 생겨나지 않고, 애육 속에서 보살법이 생긴다”라고 한 것이나,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 “이보현행 오보리



물리학의 전 역사를 단 한 마디로 짚 수 있는 단어가 있 다면 그것은 통합 일 것이다. 여기서 통합이란 그 이전보다 더 종합적으로 자연 세계를 이해하여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서로 연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간단한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적은 수의 원리에 의해 통일적으로 설명되던 예는 무수히 많다. 물리 현상을 피상적으로 관찰한다면 그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뿐만 아니라 현상 간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여러 현상들을 보다 간단한 통합 원리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은 현대물리학의 한 기동인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물리학의 또 다른 기동인 상대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삼으면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동력학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개념은 단지 근사적으로만 참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개념은 중력과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준 한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운동이라는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형진 진여 즉 제법

중생이 중생성품 쉬고 부처성품 행하면 ‘깨달음’ 공해추방·사회복지·공명선거 운동도 수행교화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중생의 성품을 쉬고 부처의 성품을 행하기만 하면 중생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의 ‘만선성불 사상’은 바로 이 도리를 여실히 밝힌 것입니다. <열반경>은 ‘일체중생 실유불성 사상’을 표방하고 있지만, <원각경>이나 선사 스님들은 중생들이 그대로 본래부처임을 가르칩니다. 그런 견지에서 천태대사는 윤회하는 고통의 단계인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6법(凡)과 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단계인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4성(聖)을 합하여 10계라고 하였으며, 10계의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9계를 구비하여 100계가 된다는 ‘10계호구설(十界互具說)’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10계를 인간생활에 대응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면, 첫째지옥은 고통스런 삶, 둘째아귀는 배고픈 삶, 셋째축생은 어리석은 삶, 넷째아수라는 다툼의 삶, 다섯째인간은 애욕의 삶, 여섯째천상은 기쁨이 충만한 삶, 일곱째성문은 배우는 삶, 여덟째연각은 결핍없는 삶, 아홉째보살은 봉사하는 삶, 열째부처는 완전무결한 성스러운 삶을 뜻합니다. 본래 ‘계(界)’란 범어로는 ‘dhatu’라고

나오는 것과 똑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토대로 불성을 갈고 닦으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욕망의 생활에 자유의지를 맡겨버리면 부처의 길은 외원한 것인 것입니다. 윤회하는 고통의 세계인 법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 열반해탈의 세계인 4성의 길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 세존께서도 인간의 고귀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당시의 ‘우연론’ ‘신의론’ ‘숙명론’ 등을 부정하여 중생들이 잘못된 사상에 의해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자기자신을 믿고 법을 믿고 계오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깨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 속에 10계가 모두 들어 있고, 지옥 속에 부처가 포함되어 있음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성품을 쉬고 부처의 성품을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의 행을 하지 않고 지옥의 행동을 하면, 그 깨달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의 행을 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옛 조사스님께서는 ‘찰나 동안 부처의 행을 하면 찰나 동안 부

“진리를 추구하되 현실고통 함께 해야하고 고통해결 위해 삶 속에서 노력하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것입니다. 그곳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 속에 중생세간이 있습니다. 즉 불발동거(佛凡同居), 부처와 범부중생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수행과 교화의 훌륭한 도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발에는 수행과 교화가 분리되거나 선후도 없는 것입니다. 언뜻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수행이며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교화이므로 이 둘은 분리되거나 선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동시에 결해야 진정한 보살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은 ‘보리를 구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

‘사과와 달’ ‘번뇌와 보리’ 개체아닌 한 운동 “현실 떠난곳에서 진여·열반을 찾지말라”

것을 뉴턴은 밝혀내었다. 뉴턴에 의하여 떨어지는 사과와 지구를 공전하는 달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물리학에서의 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몇 가지 중요한 예만을 들 어보자. 전자기학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동일한 근원에서 연유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전자기학의 기초를 완성한 맥스웰은 빛이 바로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폭과 깊이는 현대물리학에 오면서 더욱 깊고 넓어지게 된다.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우선 파동과 입자에 대한 이해가 종합된다. 전에는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며, 전에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전자나 빛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본 입자가 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고 파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다. 또한 역으로 입자라고 해도 좋고 파동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눈에 비치는 개개의 세계, 우리가 상상하는 개개의 세계는 차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과와 운동은 달의 운동과 다르고 전기는 자기와 다르고 파동은 입자와 다르고 시간은 공간과 다르며 중력은 가속도와 다르다. 그래서 또한 번뇌는 보리와 다르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며 마음은 중생과 다르고 중생은 부처와 다르다. 그러나 자연 세계에 대한 깨우침은 사과와 운동과 달의 운동을, 전기와 자기, 파동과 입자를, 시간과 공간을, 중력과 가속도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이는 세계가 오직 연이은 공이어서 움직이지 않는 단 하나의 근본이 있을 뿐이지 다 현현함에 있어 개별 세계의 차별성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일이다. 그래서 또한 부처님은 번뇌와 보리가 하나요 생사와 열반이 하나며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셨을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장엄한 화합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현실을 떠난 곳에서 찾지 말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이기도 하다. 우리가 발디디고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찾는 진여의 세계, 그래서 제법이 진여와 상즉하는 그 세계가 바로 대승의 세계일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자>

Advertisement for '대중불교' (Daejungbulgyo) magazine.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the magazine's content, including articles on Buddhist philosophy and practic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is provided at the bottom.

Advertisement for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Causes and Remedies for Women's Diseases). It promotes a product called '향비' (Hyeongbi) for treating various women's health issues. The ad includes a list of symptoms and a list of 16 benefits of the product.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is provided at the bottom.